

광주시·전남도 신종 코로나 피해 지역기업 지원 강화

시, 차 부품기업 특례보증 지원 확대·신고센터 개설
도, '경제상황 대응 TF' 출범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사람 및 물류 이동이 크게 감소하면서 관광업계, 지역기업, 소상공인 등의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 경제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등 지원 범위를 넓히고, 기업·소상공인 피해 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 대책을 내놨다.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고센터를 가동하기로 했다.

4일 광주시는 자동차부품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특례보증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위기를 겪는 기업으로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자동차부품 기업 그리고 일본 수출규제조치 피해 제조업체에서 신종 코로나 관련 피해 기업을 포함시켰다. 시는 이와 함께 (주)

위니아대우 태국 이전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협력업체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례보증은 광주시가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20억원을 재원으로 300억원 규모로 운영된다. 해당 기업은 광주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신청 후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을 통해 3.0~3.2%의 금리로 3억원 이내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 지역기업 피해 신고센터도 열었다.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지원도 강화한다. 중국 부품 수급 차질로 기아자동차 등 완성차업체 휴무가 가시화된 데 따른 것이다. 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이날 광주그린카진흥원에서 열린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 관련 여파로 부품 생산·납품

차질 등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 지역 부품기업 피해 최소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광주그린카진흥원에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전남도는 같은 날 오후 운병태 정부부지사들 단장으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상황 대응 전담팀(TF)'을 출범시켰다. TF는 물가안정,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역고용동향(실업), 지역관광지원, 수출입지원 등 5개 분야 대책 마련에 중점을 뒀다.

우선 신종 코로나 관련 기업 지원 및 물가 안정을 위한 각종 신고·지원센터를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기업 애로센터(전남중소기업진흥원), 수출기업 애로센터(전남도 국제협력과), 소상공인 애로센터(전남신용보증재단), 마스크 등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전남도 혁신경제과) 등이 설치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상환 유예



이용섭 광주시장이 4일 오후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발생에 따른 관계기관 합동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광 분야는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며 "마스크·손세정제 관련 폭리 행위도 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신고 접수 후 즉각 대응하는 등 도민 피 /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어업 재해 복구비 현실화
전남도, 12개 품목 신설·상향

고수온, 태풍 등 어업재해 피해에 대한 해양수산부 자연재난 복구비율 상정기준에 12개 품종의 어업재해 복구비 단가가 신설되거나 상향됐다.

전남도는 4일 "해수부가 전남도의 지속적인 건의를 받아들여 김 채묘 시설 복구비 지원단가가 신설돼 김 채묘시기에 태풍으로 발생된 피해복구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신설 지원단가는 김 채묘시설 복구비 1책당 22만7000원, 여러개 망을 겹쳐 채묘하는 김 양식 채묘망이 1책당 6만원으로 책정됐다.

상향 지원단가는 굴 채묘시설 중 연속 수확식 1줄(100m)당 60만2305원에서 100만3030원, 간이수확식 1대(25m×2m)당 34만9112원에서 79만4570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새고막을 비롯한 수산생물 8개 품종의 치어 입식비도 상향됐다.

위광환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재해복구비 지원단가 상향으로 고수온·태풍 등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원단가가 미반영된 품종 등에 대해 복구비가 신설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어업재해 피해복구에 대한 낮은 지원단가와 일괄적인 지원기준을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어업재해 복구비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외국인 10명 중 8명 "대한민국 이미지 긍정적"

해외문화원 국가 이미지 조사

외국인 10명 중 8명은 우리나라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긍정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10명 중 4명이 한국의 대중문화를 꼽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이 4일 공개한 '2019년도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76.7%가 한국의 전반적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 이 같은 비율은 우리 국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64.8%에 비해 높았다. 우리 국민의 긍정적 평가 비율은 지난해 54.4%였지만 올해 1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긍정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대중음악(K팝), 영화, 문화 등 대중문화가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경제수준(14.6%), 문화유산(14.0%), 제품 및 브랜드(11.6%) 순으로 파악됐다.

16개 국가별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 동남아(태국, 인도네시아, 중남미(브라질, 멕시코), 인도,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85% 이상으로 드러났다. 이와 달리

일본의 부정적 평가 비율은 53.2%로 지난해 43.4%에 비해 약 10%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수출 규제의 갈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신남방 7개국(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은 10명 중 9명이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를 매우 높게 평가했다.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등 7개국의 긍정적 평가 비율이 90%에 달했는데 이는 지난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등 신남방 정책에 따른 교류 확대 등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도 1억 이상 고소득 농업인 5166농가

전년보다 2.8% 증가
축산농 38.2% 최다

전남도내 1억원 이상 고소득 농업인이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도내 농가와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득 통계조사 결과 연소득 1억원 이상인 농업인은 5166농가로 2018년 대비 2.8%인 139농가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규모별로는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가장 많은 3996농가(77.4%)로 나타났다.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973농가(18.8%), 5억원 이상 농가도 197농가(3.8%)를 차지했다. 특히 10억원 이상 소득을 올린 농가도 지난해 대비 12농가

가 증가한 54농가에 이르렀다.

품목별로는 축산이 1974농가(38.2%)로 가장 많고, 식량작물 1857농가(35.9%), 채소 713농가(13.8%), 과수 243농가(4.7%) 등의 순을 차지했다. 특히 축산분야 고소득 농업인이 2018년 대비 184농가가 증가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60대 비율이 2237농가(43.3%)로 가장 많고, 50대가 1989농가(38.5%), 40대 이하 청년농업인들도 940농가(18.2%)였다.

지역별로는 고흥군이 566농가로 가장 많았으며, 강진군 551농가, 해남군 548농가, 보성군 389농가 순이었다. 합평군은 축산농가 집중 육성에 따라 고소득 농업인 189농가가 신규 진입해 총 336농가에 이르러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노동협력관 개방형 전문가 채용해야"

장연주 시의원 5분 발언

노동전문가를 광주시 노동협력관으로 채용하고, 광주시에 기후위기비상상태를 선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장연주 의원은 4일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광주시 노동 행정의 발전과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해 노동협력관을 개방형 전문가로 다시 공모·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노동의 가치를 철학을 제대로 갖추고 현장을 잘 알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 광주형 일자리의 비전을 확장할 수

있는 노동 전문가가 절실하다"며 "특정 노동단체의 추천이나 출신에 한정하지 말고 열린 공모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광주시 개방형 공모직인 하회협 전 노동협력관이 임용 이전의 비위 문제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4개월 만에 사직했다.

박병규 전 사회연대일자리특별보좌관(2급 상당·전문 임기제)도 지난해 1년 임기가 만료되고 사임하면서 지역 노동계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광란 의원은 이날 "세계적으로 26개

국, 1321개의 지방정부가 기후 비상상태를 선언하고, 전 세계 과학자 1만 명이 기후위기비상상태를 선포했지만, 한국 정부는 '기후 악당' 트럼프와 발을 맞추는 분위기다"며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후악당국가"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연말 61개국의 기후변화 대응지수 발표를 보면 한국은 58위를 기록했고, 국민 1인당 온실 가스 배출량은 세계 2위를 기록했다"며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적으로 높은데 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은 턱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 농업용수 개발 등 시설 정비 3298억 투입

전남도가 농업용수 개발, 우량농지 재정비 등 농업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상습 가뭄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3298억원을 투입한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업 생산 기반시설은 농지 보전과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용·배수장, 농로 등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 농산물 가격 안정 및 가치 증진 등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는 안정적 농업 용수 공

급, 우량 농지 재정비, 상습 가뭄 및 농경지 침수 예방 등을 위한 사업이 진행된다. 우선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예산 271억원), 수리시설 개보수(1153억원), 방조제 개보수(256억원) 등에 농업 용수 공급에 1680억원, 밭 기반 정비(249억원), 대규모 경지정리(162억원) 등 우량 농지 재정비에 411억원을 지원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 (100kW~1,000kW) 중형 (1,000kW~3,000kW) 대형 (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